제수용품 가격 들썩 … 설 쇠기가 두렵다

소고기·나물·배 등 지난 추석보다 올라

공공요금까지 상승 압력 서민물가 비상

설 명절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고기와 나물류 등 일부 제수용품 가격이 들썩이는가 하면 공공요금도 올랐거나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전통시장 14곳과 대형유통업체 25곳을 대상으로 2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구입 비용은 전통시장 20만6000원, 대형유통업체 2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지만 지난 추석 대비로는 각각 11.6%, 13.5% 상승한 것이다.

공급량이 크게 늘었던 배추, 무나 엔저 영향을 받은 일부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지난 추석 이후 가격이 대부분 오름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소고기는 지난 추석보다 5~8% 안팎으로 올랐고, 나물류도 고사리와 도라지 모두 가격이 상승했다. 대표 제수 과일인 배도 전통시장에서는 8.7%, 대형마트에서는 20% 이상 오른 상태다.

반면 작황이 좋았던 월동배추와 무 등 일부 품목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특히 대형마트들이 산지와 연계해 할인행사에 나서면서 배추와 무는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쌌다.

정부와 관련 단체는 설을 앞두고 일부 농축산물 물가가 오르면서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9일까지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등 28개 품목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매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서민물가 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 대비 1.6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개설해 시중보다 10~30%가량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요금과 농축산물 가격이 설 전후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를 검증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공공요금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부 김모(42)씨는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가계부담이 커질까 우려된다"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던 소고기 값마저 들썩거린다니 설을 어떻게 쇨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지난 추석 대비 주요 제수용품 가격

단위:원(%), 자료:aT 및 취합

	전통시장	유통업체
소고기 1.8kg	51,473(8.3)	65,070(4.5)
동태살 1kg	9,797(10.6)	12,423(4.1)
고사리 400g	4,375(10.5)	10,771(3.9)
배 5개	14,904(8.7)	15,743(24.9)
조기 3마리	12,273(16.1)	16,927(16.1)
배추 300g	217(67.2)	169(70.4)
무 200g	125(44.2)	100(55.8)
사과 5개	11,093(6.7)	11,010(2.3)

가격 하락 / 가격 상승

신임 광주국세청장에 나동균

광주지방 국세청장에 나동균(51·사진)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13일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안동범(57)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강형원(57)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 13명에 대한 전보를 단행했다. 〈인사 18면〉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AICPA)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세법은 물론 회계학, 국세 조세분야까지 정통한 국세청 대표적 엘리트 국세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국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총무처 공채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봉화 출신으로 영주종합고와 육사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및 세원분석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일부터 국세청 홈피서 연말정산자료 출력하세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 포인트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설 명절 안전먹거리 원산지 표시 점검

농협광주본부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하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2014년은 식품안전 무사고 해'로 정하고 9일~29일까지 광주 지역 하나로마트 27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와 식품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명절 성수용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식품 등의 보관방법,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지역본부에 '식품안전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이날부터 지역본부 지도경제팀 인원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하고 있다.

이 근 본부장은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올 설날에도 식품안전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농촌현실에 농업인을 도우려면 설날 선물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 11일 수완지구 비아농협 하나로마트 축산물코너에서 농협광주지역본부 식품안전부 담당 직원이 원산지 점검 등 식품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계란값 고공행진… 산란계 사육 두수 급증

작년 4분기 6482만마리

계란 값 고공행진으로 지난해 4분기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5.7% 늘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3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482만4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348만마리(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닭 폐사가 잇따르고 산란율이 떨어진 탓에 계란값이 오르자 사육농가에서 산란계 사육을 늘린 것이다.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 기준)은 2012년 말 1104원에서 지난해 11월 1459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식용닭(육계) 사육 마릿수도 7648만7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7000마리(0.5%) 늘었는데, 연말연시 '치킨 특수' 등으로 전분기에 비해서는 1198만2000마리(18.6%) 증가했다.

반면 오리 사육 마릿수는 1089만9000마리로 전년동기보다 26만2000마리(2.3%) 감소했다.

산지가격이 하락해 사육가구가 오리를 들여놓는 시기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991만2000마리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91만8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1000마리(4.6%) 감소했다.

젖소 사육 마릿수는 42만4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0마리(1.0%)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지규모화 사업' 금리 1%로 인하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경감을 위해 '농지(영농) 규모화 사업' 융자 금리를 1월부터 2%에서 1%로 인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지 규모화 사업은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의 매매, 장기 임대차, 교환·분합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금리는 2006년부터 2%로 고정돼 있어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그 동안 융자를 지원받은 3만4093농가가 약 1509억 원(농가당 평균 443만원)의 이자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에는 1500여 농가가 신규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48.92(+10.38)	512.92(+2.73)	2.89% (-0.02)	1056.70원 (-4.70)